

#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임은지, 오은주\*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low

Eun Ji Yim, Eun Ju Oh\*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J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r = -.28, p < .001$ ), 학습몰입은 학업지연행동과 음의 상관관계( $r = -.23, p = .001$ ), 대인관계 유능성과는 양의 상관관계( $r = .21, p = .004$ )가 있었다. 학습몰입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 = 19.30, p < .001$ ), 연령( $\beta = .16, p = .022$ ), 학업지연행동( $\beta = -.16, p = .032$ ), 학업성적( $\beta = .14, p = .043$ )은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2%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성적을 고려한 대상자별 맞춤 교육 실현과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learning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learning commitment.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1 to April 30, 2022, from 195 nursing students located in J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SPSS 20.0 program. We observ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delay behavior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 $r = -.28, p < .001$ ). Learning commit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delay behavior ( $r = -.23, p = .001$ )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 $r = .21, p = .004$ ). The regression model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learning commitmen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 $F = 19.30, p < .001$ ), age ( $\beta = .16, p = .022$ ), academic delay behavior ( $\beta = -.16, p = .032$ ), and academic performance ( $\beta = .14, p = .043$ )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7.2%. We propose that these study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increase learning immersion that will help reduce academic delay behavior and realize customized education for each subject by considering the age and grade.

**Keywords** : College Student, Employment, Learning, Communication, Academic Achievement

\*Corresponding Author : Eun Ju Oh(Jinju Health College)

email: eun-ju218@hanmail.net

Received June 17,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August 11,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고 있다. 대학에서 정해진 자신의 전공은 향후 진로 및 취업과 연결됨으로 대학에서의 학업은 사회적 전문가로서 기초를 쌓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미래 간호사로서의 직업군이 정해져 있는 편으로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국가고시를 위한 학업을 함께 하며 따라 과중한 학습량을 감당하고 있다[1]. 향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 중 학습몰입을 통한 의료지식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학습몰입이란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몰두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2] 학습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학업에 대한 동기와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3].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은 간호학과 진학 동기가 타인 권유나 취업을 고려한 경우 보다 자신의 적성에 의한 진학일 때 높았으며[4],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고 우울하지 않으며 대인관계가 좋을 때 높고[5],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할 때 흥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학습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학습몰입은 대학생활 적응과도 관련이 있어 학습몰입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지만 학습 몰입이 낮은 경우 대학생활적응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7]. 학습몰입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어 학습몰입이 낮은 경우 취업 및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증재를 위한 방안 모색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학습 몰입의 반대의 정서를 지닌 학업지연행동은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의 실패로 제때 해야 할 과제나 시험공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작하거나 완성 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말한다[9]. 비효율적 학습 습관, 부정적 정서, 비효율적 시간 관리, 목표 및 진로 미결정, 비합리적 신념, 벼락치기, 수동성 등이 포함되며[10], 일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정도는 증상 정도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11,12]. 이는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고등학교까지는 입시 위주의 수동적인 학습을 지속 하는 반면 대학생이 되어서는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

고[13],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폰 사용이나 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로 더욱 학업지연행동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14]. 학업지연행동의 증가는 스스로를 조절하고자 하는 통제력을 약화 시키고 자기 확신이나 자기효능감을 낮추며[15]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감소[12]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지연행동이 많은 경우 스스로 비합리성, 후회, 자기 비난과 학업성적 저조와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16].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고[17]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관리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가질 때[12], 학업지연행동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많은 학습량과 임상현장실습을 병행하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업지연행동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의료인의 자질로 공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이 요구된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복합적인 과정으로 서로를 알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먼저 개방하고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지, 촉진하는 과정을 말한다[1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19,20], 스마트 폰 사용 시간[20],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 자아존중감 등[21]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에 익숙하고,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여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진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임상실습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고[22],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습몰입은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이 변수들을 통합하여 학습몰입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양측검정), 효과크기 medium .20, 검정력 .80, 예측변수 수 9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수는 166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응답이 부적절한 15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95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여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은 Jeon & Kim(2015)[1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학업지연행동 도구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효율적 학습 습관' 6문항, '부정적 정서' 6문항, '비효율적 시간 관리' 4문항, '목표 및 진로 미결정' 4문항, '비합리적 신념' 4문항, '벼락치기' 4문항, '수동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Jeon & Kim(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2이었다.

#### 2.3.2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등 (1988)[23]이 제작한 대인관계 유능성 검사(ICQ: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 & Kim(1999)[2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1-5점 Likert 척도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에 응답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5가지 하위 차원으로 '처음 관계 맺기' 8문항, '권리 주장' 8문항, '자기노출' 8문항, '정서적인 지지' 8문항, '대인갈등 다루기' 8문항이다. 이 중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하였다. Buhrmester 등 (198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7-.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2.3.3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Kim, Tack과 Lee(2010)[25]가 성인학습자를 위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총 29문항이다. 하위영역은 '도전과 능력의 조화' 3문항, '행동과 의식의 통합' 3문항, '명확한 목표' 3문항, '구체적인 피드백' 3문항, '과제에 대한 집중' 3문항, '통제감' 3문항, '자의식의 상실' 3문항, '시간 감각의 왜곡' 3문항, '자기 목적적 경험' 5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Tack과 Lee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끝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형다중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Durbin Watson으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였으며,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 팽창지수(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및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분쇄하여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마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51명(77.4%), 남학생이 44명(22.6%)이었다. 학년은 1학년 72명(36.9%), 4학년 46명(23.6%)이었으며, 나이는 25세 이상이 53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가 49명(25.1%), 21~22세가 48명(24.6%) 순이었다. 신체적 건강 정도는 좋음이 111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건강 정도는 좋음이 121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부모님의 권유가 99명(50.8%)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 106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85명(43.6%), 불만족 4명(2.1%) 순이었다. 학교 성적은 3.0 이상에서 3.5 미만인 71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수는 5명 이상이 118명(60.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44	22.6
	Female	151	77.4
Academic Grade	1st year	72	36.9
	2nd	33	16.9
	3rd	44	22.6

Age	4th	46	23.6
	≤20	49	25.1
	21~22	48	24.6
	23~24	45	23.1
Physical Health	≥25	53	27.2
	Healthy	111	56.9
	Moderate	69	35.4
Mental Health	Not healthy	15	7.7
	Healthy	121	62.1
	Moderate	65	33.3
Application Motivation	Not healthy	9	4.6
	According to the Aptitude	58	29.7
	To help others	7	3.6
	Matching grade	24	12.3
	Parent's Recommendation	99	50.8
Major Satisfaction	Job guaranteeing	7	3.6
	Satisfied	85	43.6
	Moderate	106	54.4
Accumulated Academic Grades	Unsatisfied	4	2.1
	<3.0	32	16.4
	3.0~<3.5	71	36.4
	3.5~<4.0	48	24.6
Peer Relationship	≥4.0	44	22.6
	0	8	4.1
	1~2	23	11.8
	3~4	46	23.6
	≥5	118	60.5

### 3.2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의 정도

학업지연행동의 문항별 평균은 5점 만점에 2.96±0.31점이었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3.62±0.41점이었다. 학습몰입은 3.02±0.59점이었다(Table 2).

Table 2. Score of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low (N=195)

Variables	M±SD	Min-Max
Academic Delay Behavior	2.96±0.31	2.15-3.79
Interpersonal Relationship	3.62±0.41	2.55-4.75
Learning Flow	3.02±0.59	1.10-5.00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정신적 건강(F=7.5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신체적 건강(F=3.25, p=.041), 정신적 건강(F=7.25,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2.76, p=.029), 전공 만족도(F= 5.72, p=.004), 친구 수(F= 5.12,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나이(F=4.03, p=

Table 3.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low,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5)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low	
		Mean (SD)	t or F (p) Scheffe's	Mean (SD)	t or F (p) Scheffe's	Mean (SD)	t or F (p) Scheffe's
Gender	Male	2.94 (.30)	-.74 (.458)	3.59(.46)	-.77 (.442)	2.99 (.52)	-.53 (.595)
	Female	2.98 (.32)		3.64(.40)		3.04(.60)	
Academic Grade	1st year	2.96(.32)	.33 (.801)	3.63(.39)	.61 (.606)	3.03(.58)	.28 (.282)
	2nd	3.02(.27)		3.65(.44)		2.90(.66)	
	3rd	2.95(.35)		3.56(.49)		3.00(.61)	
	4th	2.96(.30)		3.68(.37)		3.15(.51)	
Age	≤ 20 <sup>a</sup>	3.01(.33)	1.11 (.344)	3.63(.41)	.56 (.642)	3.01(.51)	4.03 (.008) d<c
	21~22 <sup>b</sup>	2.99(.35)		3.67(.43)		3.10(.62)	
	23~24 <sup>c</sup>	2.97(.29)		3.65(.43)		3.22(.55)	
	≥ 25 <sup>d</sup>	2.90(.27)		3.57(.40)		2.82(.61)	
Physical Health	Healthy	2.93(.33)	2.12 (.122)	3.69(.43)	3.25 (.041)	3.15(.57)	6.75 (.001)
	Moderate	3.03(.27)		3.54(.36)		2.89(.55)	
	Not healthy	2.97(.34)		3.57(.48)		2.71(.69)	
Mental Health	Healthy	2.90(.32)	7.54 (.001)	3.70(.42)	7.25 (.001)	3.15(.56)	8.06 (.001)
	Moderate	3.08(.28)		3.47(.38)		2.87(.55)	
	Not healthy	3.04(.20)		3.76(.31)		2.58(.76)	
Application Motivation	According to the Aptitude	2.94(.33)	.69 (.596)	3.76(.41)	2.76 (.029)	3.06(.53)	.26 (.900)
	To help others	2.95(.35)		3.56(.37)		2.86(.55)	
	Matching grade	2.91(.32)		3.68(.44)		2.98(.72)	
	Parent's Recommendation	3.00(.30)		3.54(.40)		3.04(.60)	
	Job guaranteeing	2.94(.30)		3.64(.45)		2.95(.3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2.94(.34)	.48 (.616)	3.73(.42)	5.72 (.004)	3.12(.59)	2.73 (.067)
	Moderate	2.99(.29)		3.54(.39)		2.98(.57)	
	Unsatisfied	2.97(.32)		3.77(.49)		2.56(.73)	
Accumulated Academic Grades	<3.0	3.05(.25)	1.01 (.385)	3.64(.40)	.22 (.878)	2.75(.69)	4.46 (.005)
	3.0~3.5	2.96(.32)		3.61(.38)		2.98(.55)	
	3.5~4.0	2.96(.35)		3.61(.50)		3.17(.53)	
	≥4.0	2.94(.29)		3.67(.40)		3.17(.55)	
Peer Relationship	0	2.75(.21)	1.83 (.143)	3.28(.31)	5.12 (.002)	2.90(.47)	1.01 (.386)
	1~2	3.04(.32)		3.46(.37)		2.85(.64)	
	3~4	2.98(.30)		3.58(.38)		3.09(.52)	
	≥5	2.96(.32)		3.71(.42)		3.05(.60)	

.008), 신체적 건강(F= 6.75, p=.001), 정신적건강(F= 8.06, p<.001), 학업성적(F= 4.46,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25세 이상 군보다 23~24세 군이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 3.4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 $r = -.277, p = <.001$ )가 있었다. 즉 학업지연행동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 $r = -.233,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지연행동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 $r = .207, p = .004$ )가 있는 것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low (N=195)

Variables	Academic Delay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low
	r (p)	r (p)	r (p)
Academic Delay Behavior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77(.001)	1	
Learning Flow	-.233(.001)	.207(.004)	1

### 3.5 대상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습몰입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학업성적을 더미 처리하고, 주요 변수인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증한 결과 1.97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 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통계적으로 적합한 최종 회귀 모형은 연령, 학업지연행동, 학업성적을 분석하였고 설명력은 17.2%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습몰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beta=.16, p=.022$ )이며, 학업지연행동( $\beta=-.16, p=.032$ ), 학업성적( $\beta=.14, p=.04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of Learning Flow (N=195)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3.074	.602		5.105	.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150	.100	.106	1.495	.137
Academic Delay Behavior	-.293	.136	-.155	-2.159	.032
Age *	.220	.095	.156	2.310	.022
Physical Health *	.185	.101	.156	1.836	.068
Mental Health *	.121	.107	.101	1.133	.259
Accumulated academic grades *	.194	.095	.139	2.041	.043

Tolerance= .574~.995 VIF=1.005~1.743  
Durbin Watson=1.86

Adj. R<sup>2</sup>=.172 F=6.344 p<.001

\* dummy variable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지연행동은 5점 만점에 2.96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의 연구 [11]에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정도가 2.70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정도가 중상 정도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학업지연행동이 반복되면 대학생활 동안 비효율적인 학업태도와 시간 관리의 습관이 굳혀지고, 전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26]. 사회진출 후에는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지연 행동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11] 대학 시기 동안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62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7]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가 평균 3.56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높았다.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와 기관의 의료진 및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향상을 증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3.02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조사한 연구에서 [28]에서 평균 2.49점, 2.85점[29]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 대상자가 2학년보다 1학년의 비율이 높고, 3.4학년의 비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나 반복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습몰입은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28],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을 높이는 것을 볼 때[30]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위한 체계적인 개입은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정신적 건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신적 건강이 좋을 때 보다 나쁨이나 보통일 때 학업지연행동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1]에서 건강 상태가 나쁨이나 보통일 때 보다 건강할 때 학업지연행동을 적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 하였다. 최근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취업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돌봄을 실천해야 할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간호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간호학과지원 동기, 전공 만족, 친구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31]에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던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정신적 건강은 보통이나 나쁨보다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건강과 대인관계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32]에서 대인관계가 낮을수록 사회불안 점수가 높고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따라서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반복 연구를 통한 규명과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된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동기와 대인관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미비하여 비교하기는 불가하나 선행연구[33]에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던 결과와 선행연구[27]에서 대학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만족하는 경우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며 대인관계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미래의 직업으로 이어지며,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미래의 직업군이 정해져 있어 적성이 맞지 않는 경우 학업을 이어나거나 대인관계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 될 수 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과 보통보다 불만족일 때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19,34]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보여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친구 수는

5명 이상일 때 대인관계 유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31]에서 친구 수가 많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던 연구 결과와 동일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또래와의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 등을 통해 또래 문화 형성과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연령,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23~24세가 25세 이상보다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35]에서 26세 이상에서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최근 25~29세의 대학 입학자가 증가하고 있고 입학 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40대 이후에 다시 공부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36] 간호 대학의 경우도 재입학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 층이 함께 학습을 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몰입이 낮아짐에 따라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지도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에서[6,28]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Kim[6]의 연구에서 학습몰입에 정신적 건강인 우울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성적이 좋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6,28,37]에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체계적인 학습법, 자기주도학습, 체계적 학습 환경 등을 통해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과 대인관계 유능성, 학습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지연행동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학업지연행동이 줄어들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대인관계 유능성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의료인과의 협력적인 업무에서 꼭 함양되어야 할[38] 능력으로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습몰입과 학업지연행동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습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스스로를 조절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중재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습몰입과 대인관

계 유능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5]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연구와 Han[1]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과 학습몰입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간호학의 경우 이론 및 실습에서 팀별 활동과 과제가 많은 편으로 이론 및 실습에서부터 동료들, 교수자들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관련이 있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학업지연행동,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학업성적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학업지연행동, 성적이 학습몰입에 유의성을 보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총 17.2%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5]에서 학년에 따라 학습몰입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가 있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이 높아짐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반복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학습몰입의 차이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간호학과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하는 경우와 성인 학습자, 졸업자 전향 등으로 20대에서 5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연령에 따른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노력과 대상자별 개별지도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지연행동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지연행동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39]에서 사고, 정서, 행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고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 통제력이 학습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결과를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지면 학업지연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휴대폰 소지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한 작용은 주의력 결핍과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40].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규명을 다각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6]에서 학업성적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으로 이어져 바람직한 대학 생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입학 시점부터 학점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지도하고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우수사례공유, 또래 지도 등의 효과적인 방안 모색과 체계적인 개별적 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개별적 접근방식을 통한 효과적인 지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대인관계 유능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본 결과, 연령, 학업지연행동, 성적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변수나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더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몰입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어 연령에 따른 대상자별 개별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관리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성적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학에서부터 개별 성적관리와 학습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지연행동과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반복 연구를 제안하며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J. H. Han, "Effects of Problem Solving Confid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1, pp.1103-1116,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1.1103>
- [2] Steele, J. P. & Fullagar, C. J. "Facilitators and outcomes of student engagement in a college sett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Vol.143, No.1, pp.5-27, 2009.



- [3] K. H. Kim, G.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key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8, No.4, pp.117-143, 2020.  
DOI: <http://doi.org/10.18230/tije.2020.28.4.117>
- [4]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1557-1565,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57>
- [5] D. O. Kim, H. J. Lee, A. Y. Lee,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hysical health statu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 pp.349-357,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349>
- [6] J. H. Oh, J. S. Kim,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and Social Support on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3, pp.1021-1037,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3.1021>
- [7] J. K. Lee, J. G. Lee, W. J. Kim,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Commitmen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4, No.2, pp.41-48, 2020.  
DOI: <https://doi.org/10.38083/JKNS.24.2.202008.041>
- [8] E. J. Park, G. S. Jeong,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3, pp.153-162, 2020.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0.8.3.153>
- [9] Milgram. N. A. Procrastination In R, " Research Procrastination Publications" *Encyclopedia of human biology*, Vol.6, pp.149-155, 1997.
- [10] B. R. Jeon, J. S.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cademic Procrastination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1, NO.3 pp.53-83, 2015.
- [11] G. C. Jeong, "Influence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Grit Moderated by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12, pp.611-622,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12.611>
- [12] Y. A. Kim & Y. H.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Beginni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9, pp.459-471, 2016.  
DOI: <http://doi.org/10.35873/aimahs.2016.6.9.043>
- [13] S. M. Lee, N. M. Yang,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Focusing on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as a Mediator",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3, No.3, pp.717-738, 2011.
- [14] E. Y. Choi, N. M.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Fatigue and University Students' Behavi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Learning Flow",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Vol.15, No.3, pp.373-382, 2020.  
DOI: <http://doi.org/10.34163/ikits.2020.15.3.007>
- [15] J. U. Kim, N. H.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nd mattering",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0, pp.529-551, 2019.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9.19.20.529>
- [16] Burka, J.B.,Yuen,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1983.
- [17] H. J. Park, D. H. Anh,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gulation, Time Management,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2, pp.867-891, 2018.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8.18.22.867>
- [18] E. Polan, D. Taylor, "Human development and health promotion", Hyunmoonsa, pp.1-423, 2014.
- [19] S. Kang,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 pp.35-43, 2020.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1.035>
- [20] J. H. Yoo, E. Y. Cheon, "Effects of Empathy, Self-control,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4, pp.82-90,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4.82>
- [21] K. E.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Vol.27 No.3, pp.316-324,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3.316>
- [22] E. J. Lim and M. H. Lee,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5, pp. 279-286,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279>
- [23] Buhrmester, Duane, et al.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 [24] C. D. Kim, S. I.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student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Life Institute, Vol. 35, No.1, pp.83-95, 1999.
- [25] A. Y. Kim, H. Y. Tack, C. H.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4, NO.1, pp.39-59, 2010.
- [26] C. Y. Yun, E. H. Lee,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Procrastination, Impulsiveness, Learning Strategies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Vol.25, NO.4, pp.151-170, 2017. DOI: <http://doi.org/10.18230/tiye.2017.25.4.151>
- [27] J. I.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286-295,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6.286>
- [28] Y. S. Kim, "Academic stress, Daytime sleepiness, Depression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5, pp.867-883,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5.082>
- [29] Y. M. Kim,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112-12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7.112>
- [30] J. K. Lee, J. G. Lee, W. J. Kim,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Commitmen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4, No.2, pp.41-48, 2020. DOI: <https://doi.org/10.38083/JKNS.24.2.202008.041>
- [31] K. E.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Vol.27, No.3, pp.316-324, December,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3.316>
- [32] K. N. Kim,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417-424,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6.417>
- [33] E. H. Jo, H. S. Kim, S. J. Hwang.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3, pp.290-298,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90>
- [34] S. 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8, No.2, pp.103-113, 2019.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9.28.2.103>
- [35] S. E. Jeong, J. H. Ha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5, No.4, pp.393-404,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393>
- [36]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Korea. pp 23.
- [37] M. Y. Lee, "Influence of E-learning Quality, Presence and Computer Skill Ability on Learning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4, pp.1021-1037, 2020. DOI: <http://doi.org/10.22251/jlcci.2020.20.14.1021>
- [38] M. H. Lim,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8, No.3, pp.35-43, 2020. DOI: <http://doi.org/10.22678/JIC.2020.18.3.035>
- [39] J. U. Kim, Y. M. Jeong,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n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1, No.2, pp.247-265, 2013.
- [40] I. C. Im, K. A. Ja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excessive smartphone use on attention deficit, learning environment, and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12, pp.129-137, 2017. DOI: <http://doi.org/10.15207/JKCS.2017.8.12.129>

임 은 지(Eun Ji Yim)

[정회원]



- 2016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20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삶의 질, 건강보존

오 은 주(Eun Ju Oh)

[종신회원]



- 2006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모유수유, 여성건강증진, 다문화, 간호교육